통도사·범어사, 백중 회향…불은 실천 발원

〈佛恩〉

성파 대종사 "불자라면 실천해야"
제비 울음에 담긴 지혜의 가르침
정여 대종사 "백중 지장기도도 수승"
지장보살 원력, 선행 실천을 당부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hasm77@hanmail.net



9월 6일 백중을 맞아 통도사와 범어사가 백중기도를 회향했다. 사진은 9월 6일 통도사 '백중 사선망부모 천도기도 회향법회'에서 법문하는 조계종 종정 중봉성파 대종사.

전국 사찰들이 백중기도 회향을 봉행한 가운데, 경남을 대표하는 통도사와 범어사가 대중과 함께하는 법석을 열어 불은(佛恩)의 실천과 기도의 공덕을 일깨웠다.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는 9월 6일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 스님) 설법전에서 열린 '백중 선망부모 천도기도 회향법회'에서 지혜와 언어 수행의 가르침을 대중에 전했다.

성파 스님은 '제비의 노랫소리'를 비유 삼아 법문을 시작했다. "제비는 사람 곁에서 집을 짓고 보호를 받으며 아침저녁으로 노래로 보답한다. 불자들도 부처님의 은혜를 실천으로 회향하기 위해 무엇보다 제비가 노래하듯 말을 해야 한다"며 제비가 우는 소리가 "지지위지지, 부지위부지(知之爲知之, 不知爲不知, 是知也)"라고 말했다. 스님은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할 줄 아는 태도가 수행자의 바른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말의 무게를 역설했다. "말은 화살과 같아 한 번 귀에 꽂히면 힘으로도 뺄 수 없다"며 언어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해치기도 하는 무서운 힘을 지녔음을 경책했다. 스님은 "악담과 독한 말을 삼가고, 대신 염불로 마음을 다스리라"고 당부했다.

성파 스님은 "사람 몸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큰 복"이라며 "불자는 아는 데 머무르지 말고 반드시 실천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올 한 해 재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백중기도를 원만히 회향한 사부대중의 노고에 깊이 감사하다"고 격려했다.

주지 현덕 스님은 회향사에서 "효는 부처님의 자비심에서 비롯된 마음으로, 가족을 살리고 어른을 공경하며 생명을 존중하는 바탕"이라고 강조했다.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정오 스님)는 90일간 이어온 '을사년 백중지장기도 선지식 초청법회'를 9월 9일 회향했다.

설법전에서 사부대중 10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열린 회향법회에서는 금정총림 방장 정여 대종사가 불자들에게 기도의 의미와 지장보살의 원력을 설하며 정진을 당부했다.

정여 스님은 법문에서 "많은 수행이 있지만 선망부모와 모든 중생을 위해 100일 동안 지장기도를 올린 공덕은 그 어떤 수행보다도 수승하다"며 "불자님들의 정성으로 살아 있는 이들의 업장이 맑아지고, 죽음의 세계에 머물던 유주무주 고혼들 또한 극락세계에 왕생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장보살은 지옥 중생이 다 성불할 때까지 성불하지 않겠다는 큰 원력을 세운 분"이라며 "남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고, 선행할 기회가 있을 때 미루지 말고 실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주지 정오 스님이 사중을 대표해 생전예수재 가사불사로 마련된 새 가사를 정여 스님에게 공양 올렸다.

정오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윤달을 맞아 가사불사를 봉행해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과 선방 스님들께 가사를 공양 올릴 수 있었다. 이는 불자님들의 신심과 동참 덕분"이라고 전했다.

주석 스님, 불교방송 합창단에 5000만원

9월 8일, "천진불 울림 커지길"



BBS부산불교방송(사장 원허 스님)은 9월 8일 혜원정사 혜원복합문화센터에서 '소년소녀합창단 후원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주석 스님은 합창단의 안정적 운영과 불교 청소년 인재 육성을 위해 후원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사진〉

주석 스님은 인사말에서 "부산불교방송은 방송 제작비 등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불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에 소년소녀합창단 창단 소식을 듣고 함께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불교방송 소년소녀합창단이 더욱 성장해 세계 무대에서 공연할 수 있는 실력과 힘을 갖추길 바란다"고 말했다.

BBS부산불교방송 사장 원허 스님은 "주석 스님의 큰 뜻이 합창단을 이끄는 모든 이들에게 큰 용기와 위안이 되고 있다"며 "처음에는 어렵게 시작했지만 믿음과 원력이 모여 합창단이 앞으로 전국과 세계 무대에서 천진불의 목소리를 울려 퍼뜨리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BBS부산불교방송 소년소녀합창단은 부산불교방송이 자체적으로 설립한 어린이 합창단으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8시 30분까지 혜원정사 2층 연습실에서 정기적으로 연습하며 실력을 다지고 있다. 예술감독 정필윤과 음악감독 윤재웅이 합창단 지도를 맡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 동래구불교연합회, 자비의 백미 나눔

9월 8일, 자비암서 600만원 상당



부산 동래구불교연합회(회장 자관 스님)가 지역 어르신을 위한 자비 나눔을 실천했다.

연합회는 9월 8일 부산 자비암에서 전달식을 열고 동래구 내 노인복지관과 무료급식소에 백미 20kg 84포, 10kg 32포(60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사진〉

자관 스님은 "백중 기도를 회향하며 더 많은 복덕을 이웃과 나누고자 스님들이 마음을 모았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전달된 백미는 동래구 관내 복지기관을 통해 배분돼 어르신 무료급식소와 소외계층 지원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불교문화 보고 범어사 '웰니스 콘텐츠' 각광

9월 5~6일, 의료관광컨벤션 참가
템플스테이 등 불교문화 홍보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정오 스님)가 9월 5~6일 벡스코에서 열린 '2025 부산국제의료관광컨벤션'에 참가해 웰니스 컨텐츠로서의 사찰문화의 새로운 가치를 선보였다. 행사 기간 해외 바이어와 국내 관련 기업은 템플스테이, 사찰음식, 템플레킹 등 범어사의 웰니스 콘텐츠에 큰 관심을 보였다.

범어사는 이번 행사에서 총 3개의 전시 부스에서 템플스테이·사찰음식·템플레킹을 소개했다. 템플스테이 부스에서는 명상, 다도, 찻자리 등 다양한 체험 요소를 담은 프로그램을 전시했고, 템플레킹 부스에서는 금정산 일원에서 진행되는 당일형 트레킹 코스를 소개했다. 사찰음식 부스에서는 파인다이닝 콘셉트와 체험형 메뉴를 함께 제안해 주목을 받았다. 아울러 성보박물관도 참가해 불교 문화유산의 가치를 알렸다.

행사에 앞서 열린 환영 리셉션에서는 몽골, 러시아, 태국, 필리핀, 중국, 베트남 등 여러 국가 기관 및 에이전시 관계자들과 만났다. 본 행사 기간에도 사전 예약과 현장 접수를 통한 1:1 비즈니스 미팅이 이어져 범어사의 웰니스 콘텐츠를 해외 시장에 적극 홍보하는 창구가 됐다. 일부 국가와는 협약 논의 단계까지 진전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범어사는 '지역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 입주 기업과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웰니스 프로그램 활용 방안을 논의해 의미를 더했다. 범어사가 추진 중인 '블록체인 접목 웰니스' 는 의료관광형 체험 프로그램의 개인정보와 참여 기록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정보 암호화 기술(블록체인)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참가자가 사찰의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NFC 등 간편 인증으로 최소한의 출입·참여 사실만 기록하는 구조다. 기록은 블록체인에 저장돼 외부 수정·유출이 어렵고, 민감정보는 비공개로 보호된다.



금정총림 범어사가 9월 5~6일 '2025 부산국제의료관광컨벤션'에 참가해 웰니스 관광지로서 사찰의 새로운 가치를 선보였다.

주지 정오 스님은 "이번 컨벤션은 범어사의 웰니스 관광 콘텐츠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좋은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우리 불교문화 고유의 가치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해 K-웰니스를 대표하는 콘텐츠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연등사 주지 범일 스님 취임식 봉행

9월 6일 "소통 도량으로 가꿀 것"



부산 연등사는 9월 6일 주지 범일 스님의 취임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연등사는 지역에 자비의 쌀 500kg을 전달해 생전예수재와 백중기도 회향을 의미를 새겼다.〈사진〉

범일 스님은 취임 인사에서 "연등사는 1860년대 창건된 전통사찰로 부처님 후불탱화와 석조좌상 지장보살이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도량"이라고 소개하고 "앞으로 부산 시민과 불자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평안을 전하는 전법 도량으로 거듭나겠다. 또 시민과 불자들의 행복을 위한 소통의 도량이 되도록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가정에서도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연하게 여겼던 사찰에서의 수행이 어려워진 요즘,
꼭 어딘가에 가지 않더라도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불자분들의 수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가정용 수행 용품을 붓다북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불교서적 | 불교용품 | 명상음반
www.buddhabook.co.kr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돈암동일하이빌 B1 ㈜운주사
Tel. 02-953-7181
법보시용 대량 주문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자연의 색,
K-컬쳐로 피어나다"

제11회 대한민국천연염색 작가대전

The 11th Natural Dye Artist Exhibition and Color Festival

| 일자 | 2025. 09. 27.(토) - 28.(일)
| 오프닝 | 11:00
| 장소 | 광천관음사
| 주최 | 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천연염색협회, 광천관음사
| 후원 | 충청남도 Chungcheongnam-do 홍성군 HONGSEONG-GUN
| 후원단체 | 광천관음사, 밀양보문사, 포항소화공방, 사천알알이랑, 부안은당공방, 문경만타산방, 제주참곱다, 동막골스토리, 마타리공방, 소현공방, 청염공방, 최정혜공방, 블루윙 소운성공방, 조각보에담은세상, 가온전통문화연구소, 석미스토리